목차

1. 대화 내용
2. 캐릭터 설정

1.

Scene 오프닝

#

서기 210X년, 인류는 자욱한 스모그 속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간간히 연명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적 신체는 부적합했고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기계화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현재 지구 상에 인간이라는 종족의 지위를 부여 받은 존재의 평균 신체 기계화율은 90%에 육박한다.

사물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은 모든 존재자를 네트워크 세계에 접속시키게 되었고 이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때 중단되었던 원자력 발전 시설 및 화력 발전소의 설치가 가속화 되었으며 그 결과로 인류는 완전한 초연결사회를 이룩하였지만, 원자력 시설 폭발과 화력 발전소의 부산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어느 생명체 하나 기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존재란 생명체라고 쉽게 부르기 힘든 인간이란 존재와 바퀴벌레 정도일 것이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이전 푸른 행성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회색 행성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얻은 전력 또한 고갈 위기에 처해있다. 만약 전력 공급이 멈추게 된다면 지구 상의 인간이란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의 주인은 바퀴벌레(?)~~

# 1 크리스틴의 연구실 내부

C : 흐흐, 이제 ‘무한동력’의 실현이 눈 앞에 다가왔군.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세계, 나 ‘크리스티나수’가 이 세계의 신이 되는 거지. 현재 인류가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하나 하나 죽어 나가면서 모두가 사라진 뒤 완전히 디버깅된 인류를 다시 만들어 낼 것이야. 현재의 인류는 모두 버그 투성이였어.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 자신의 세계를 망가뜨려버렸지. 나는 그 모든 버그를 수정하고 ‘기계 장치 위의 신(데우스 엑스 마키나)’이 되는 거야.

알프, 부탁한 프로젝트 ‘사이버-하트’의 테스트의 진행률은?

A : 총 7,223,821 ZB 중 95%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11시 58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부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요 근래 수면 부족으로 크리스티나님의 생체 부분인 심장이 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그 덕분에 짜증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개 짜증임?)~~

C : 그것도 그렇군. 어쩐지 몇 일간 심장 부근이 아파온다고 생각을 했었어. 좋아. 그 의견 받아들이지. 남은 것 부탁해. ‘사이버-하트’를 이식한 후 같이 축배라도 들자구. 하하 알프 넌 못 마시겠지만.

A : …

# 2 크리스틴의 침실

몇 시간 뒤

(폭발음이 들리고, 주변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C : 우아앗, 이게 무슨 일이야. 알프, 알프, 알프!!! 당장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대답해!!!

A : 연구실 내부 지하실 섹터 2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적으로 추정되는 2 개체,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시설 내부로 잠입해온 것 같습니다. 시설 붕괴까지 2분 남았습니다.

대피 시스템 가동. 필요한 데이터는 비상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고 이차적 데이터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C : 무능한 인공지능 같으니라구. 사건이 해결된 후 지금 현재 인격을 롤백시켜버리겠어. 그건 그렇고 프로젝트 ‘사이버-하트’는?

A : 지하실 섹터 2의 전력 공급 장치 파괴로 인해서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의 비물체성으로 인해 물리적 장치의 회수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설 붕괴로 인해 침실에서부터 물리적 장치가 있는 연구실 섹터 1까지 크리스티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됩니다.

C : 아니 이제껏 내가 연구해온 결과가 물거품이 된다고?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데이터보다 물리 장치가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야.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물리적 장치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이 멍청한 AI야!! 빨리 방법을 찾아내!!!

A : 프로젝트 ‘사이버-하트’의 물리적 장치 회수 시나리오들의 분석 결과 회수 확률은 0%. 크리스티나님의 생명 유지를 위해 물리적 장치의 포기해야합니다. 연구실 완전 붕괴까지 2분 남았습니다. 탈출 시퀀스를 실행합니다. 현재 위치로 워프 장치 연결 후 강제로 크리스티나님을 안전지대로 워프 시스템을 실행시키겠습니다.

C : 아아아아.. 안돼, 이렇게는 안된다구!!!!!

(워프 시스템이 작동한다.)

# 게임 내 BH 연구소

A : 적의 연구소로 추정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C : 알프, 이 구역에 적이 존재할 확률은?

A : 조사 결과 93.75% 오차 범위 5% 내외입니다.

C : 파괴된 줄만 알았던 내 프로젝트가 사실 BH란 집단의 도난극이었다니.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생길 것을 고려해야만 했어. 이번에는 꼭 내 연구결과를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는 계속 허탕이었단 말이지.

A : 구역 내 생명체 및 기계 활동 다수 감지. 탐지 시스템에서 전투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C : 드디어 내 마지막 연구를 완성할 순간이 온 것 같아. 조금이라도 빨리 완전한 자신이 되고 싶어.

(진입)

# 1. 엔딩 (공통 선택지 분기)

A : 크리스티나님, 당신의 연구는 현재 인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많은 오류를 범해온 버그 투성이의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그로 인해서 인류는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저를 만든 당신의 부모님 역시 저의 코드 속에 이러한 내용을 작성해두셨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그 코드에 달린 주석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크리스티나님과의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학습하면서, 현 인류를 완전 제거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제 프로그램에 기입된 내용과 부합률이 높은 것이라고 계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인큐베이터는 프로젝트 ‘사이버-하트’의 개발과 동시에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행시켜온 프로젝트 ‘호모-리커버리스’의 결과입니다. 현재 인류 신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인류를 과거 삭제된 줄만 알았던 게놈 지도의 데이터를 발견해 100% 생체 인류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 인류가 자신의 온전한 신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이버-하트’의 무한동력이 지구 환경 재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선택지 출현)

1. 알프의 의견을 따른다.
2. 크리스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한다.

(같은 복장을 입은 사람들만이 돌아다니는 이미지)

# 2번 선택지를 선택하였을 경우

내래이션 : 크리스티나의 의견의 반대하던 기존의 알프 버전은 삭제되었으며, 크리스티나는 신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녀의 ‘사이버-하트’ 가동으로 인해 지구 상의 모든 전력은 장치 가동에 이용되었고 전력 공급에 의존하던 현재의 인류는 하나 둘 생명 유지 기능이 정지되어갔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뜻대로 기존의 탐, 진, 치의 버그를 제거한 신인류를 생성하였으며, 스 DNA 데이터 가장 깊숙한 곳에 ‘크리스티나의 의견에 완전 복종’할 것이란 코드를 새겨놓았다.

크리스티나는 처음으로 현전하는 인류의 기계 장치 위의 신이 되었다.

# 1번 선택지를 선택하였을 경우

??? : 엄마~! 다녀왔습니다!!

C : 왔니? 샤롯~~!

A : 오셨습니까? 샤롯님

Ch : 응 다녀왔어 알프. 이것 봐봐 오늘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다. 이건 엄마, 이건 알프 그리고 이건 나. (활짝 웃으며) 잘 그렸지~?

A : 역시 대단하십니다. 샤롯님. 그림 실력도 아주 출중하시군요. 역시 제 주인님 다우십니다.

Ch : 히히 맞아. 나는 대단한 거 같아. 하지만 이것도 다 엄마랑 알프 덕분인 걸. (한 명씩 입맞추면서 ) 고맙습니다!!

내래이션 :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의견을 마지막 순간에 바꾸었다. 오로지 자신의 신념으로만 살아온 그녀가 무슨 변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구는 ‘사이버-하트’의 무한동력으로 인해 인류가 기계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정화되고 있다.

그 덕분에 그녀에겐 사랑스러운 자식이 생겼고, AI에 적합한 인공 신체를 제공하였다.

까칠하던 그녀가 샤롯을 키우면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버그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감정 일부가 인류의 감정을 존재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2.

캐릭터 설정 :

1. 크리스티나 수 : 악녀 컨셉의 천재 기계 공학자. 현 인류를 버그 투성이의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전부 없애려 한다. 그리고 나서 공백 위 버그 없는 신인류를 창조하고 자신이 그 신으로 군림하려 한다.
2. 알프 :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하는 AI. 크리스티나 수의 부모님이 만든 AI로서 사고로 일찍 사망한 자신들 대신 그녀를 키워온 존재. 그녀의 성격을 받아줄 존재는 알프 밖에 없을 것.
3. 샤롯 : 알프가 만들어낸 최초의 ‘호모-리커버리스’. 크리스티나 수의 기존 생각을 바꾸어 버린 존재.